부산연등축제, 통큰 변신 기대

부산불교연합회 2013년 봉축 마스터 플랜 제시

부산연등축제기획위원회는 3월11일 부산 미타선원에서 기획단 회의를 열었다. 기획위원회는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봉축표어로 정하고 부산연등축제 공식 일정을 발표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스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2013부산연등축제'의 봉축표어와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부산연등축제기획위원회(위원장 심산스님)는 3월11일 부산 미타선원에서 개최된 기획단 회의에서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이라는 봉축표어를 선정하고, 부산연등축제 공식 일정을 발표했다.

공식일정은 △3월 26일 조직위원회 결성법회 △4월27일 봉축점등식 △5월7일~12일 부산연등문화제 △5월 11일 봉축연합대법회 △5월11일 구덕종합운동장- 국제시장-대청로 구간 제등행진 △5월11일 대청로 대동회향한마당을 펼친다. 또한 전통 등 문화의 보급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대동회향마당 재정비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

위한 '전통등경연대회'가 올해 처음 개최되며 '아마추어 사진공모전'도 진행된다.

올해 부산연등축제에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으로 제등행진과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할 대청로 대동회향한마당 행사에 큰 변화가 주목된다. 부산연등축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제등행진은 사찰별, 단체별로 장엄등과 행렬등이 한데 섞여 이동해서 오는 무질서함과 지루함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지는 행렬의 길이와 먼저 도착한 선두그룹의 철수와 이탈로 행사의 피날레가 되어야 할 대동회향한마당은 후발대의 원성과 한숨만 가득한 '피로회향한마당'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올해 부산연등축제의 주안점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크게 개선해 '모두가 함께 관람하는 축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큰 변화를 시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부산연등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브라질 샴바축제 퍼레이드처럼 대형장엄등과 화려한 복식을 입은 행렬등 무리를 한 데 묶어 선두군으로 한다. 또한 자유 복장의 시민과 행렬등 무리는 사찰·단체 구분없이 자유행진군으로 후발대로 묶어 동선을 압축하고, 거리응원단을 조직하여 흥을 더할 예정이다. 축제의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제등행진의 의미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한 것이다.

또한, 대동회향한마당은 먼저 도착한 선두그룹이 대청로 600m구간을 화려하게 장엄하고, 특별히 설치된 무대와 무인비행선을 이용한 꽃비 등의 특수효과 등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내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할 것이다.

한편, 용두산공원에서 진행되는 연등문화제는 행사기간동안 대형전통등, 장엄등, 창작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체험, B-Boy댄스경연대회, 국악한마당, 비빔밥무차만발공양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연등축제의 자세한 일정은 공식홈페이지 www.bba48.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불교승가연합회 사무실 열어

온천동 소재… 3월 18일 개소식

부산불교승가연합회가 사무실 개소식 장면

지난해 12월 창립한 부산불교승가연합회가 부산 온천동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전법활동을 시작했다. 부산지역 군소종단 연합체인 부산불교승가연합회(회장 법민스님)는 3월 8일 부산 온천동에서 회장 법민 스님(수덕사 주지), 이사장 조연 스님(법연원 주지), 사무총장 자인스님(길상사 주지), 통합선교종 종정 정각스님(미룡사 회주), 해인종 종정 혜지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개소식을 개최했다.

부산 온천동 베스트그린빌딩 4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330m2 규모로 사무공간과 교육장, 상담실과 휴게실을 갖추고 있다. 이 공간은 연수교육 및 법률, 행정 지원 업무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부산불교승가연합회 회장 법민 스님은 "권위적인 회장이 아니라, 항상 하심하고 경청하는 회장이 되겠다"며 "다양한 종단이 모인 단체지만 모두 부처님의 일불제자이고 부산 불교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모인만큼 종단 간 화합과 부산 불교의 발전을 위해 정진해 나가자"고 인사했다.

사무총장 자인 스님은 "교육장을 활용한 다양한 연수교육을 통해 부산시민과 불자들에 귀감이 되는 승가의 모습을 확립하고 승가공동체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보광원 조실 화산 스님 영결식 엄수

화산 스님 영결식 장면

지난 3월 6일 입적한 대구 보광원 조실 화산당 학명 대종사의 영결식이 3월 10일 오전 보광원에서 봉행됐다. 영결식은 은해사 조실 혜인스님과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 주호영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장소개와 생전 육성법문, 영결사, 법어, 추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산불피해 성금 전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스님)가 울산지역 대규모 산불피해성금을 울주군에 전달했다.

통도사 스님들이 3월 14일 울주군청을 방문해 지난 9일 발생한 울산지역 산불화재로 고통받는 피해주민들을 돕기 위한 산불피해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전달을 위해 총무국장 현덕스님, 사회국장 도안스님, 호법국장 진웅스님은 울주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신장열 울주군수에게 직접 전달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통도사 총무국장 현덕스님은 "차후에도 쌀과 물품, 인력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이제열 법사 〈금강경〉 강의

법림 대구법회(회장 박동훈)는 3월 5일 금강경 대강좌 개강법회를 열었다. 법림 대구법회는 이제열 법사를 초청 대구불교회관 6층 만불보전 법당에서 매주 법회를 연다.

첫 법회에는 사부대중 50여명이 동참했다. 법림 대구법회 박동훈 회장은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복의 길을 제시했다"며 "이제열 법사는 수십년간 법문을 펼쳐온 경험과 수행으로 부처님이 전하는 금강경의 법을 명확하게 짚어 내어, 공관수행으로 재가불자들을 해탈의 길로 안내할 행복한 만남이 되었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나무 한 그루도 종교적 상징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봄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슬그머니 도망간 자리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남녘에서는 동백이며, 매화며, 산수유, 목련 같은 꽃들이 꽃망울을 열었고 조금 더 지나면 진달래, 철쭉, 개나리,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벚나무도 꽃을 피워 온 세상이 꽃 잔치로 떠들썩할 것이다.

예로부터 사찰에서는 꽃 공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찰주변은 물론이거니와 사찰경내에도 꽃이 피는 나무와 초화류들을 많이 심었다. 철따라 피는 꽃을 부처님에게 공양함은 물론 스님들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몇몇 서적을 보면 지난날 사찰에 심었던 나무나 꽃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흥미롭다. 〈동국여지승람〉을 보면 "화암사(花巖寺) 못가에 창포가 우거져 있고, 섬돌 앞에는 노랑목단이 피어있으며, 작약도 붉게 피어있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오래 전부터 사찰에서 좋은 나무와 초화류를 심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찰에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나 초화류를 심어서 필요한 꽃과 열매를 얻었으나 그것들이 심어지는 장소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키 큰 나무를 마당 한가운데 심는 것은 피했는데, 그것은 담장(口) 안에 나무(木)를 심으면 괴로울 곤(困)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좁은 마당에 나무를 심으면 바람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햇빛이 들지 않아서 습해지고 결과적으로는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었다.

사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적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사찰의 중심공간은 탑이 서는 자리이고 여러 가지 의식이 치러지는 공간이어서 상징성과 더불어 불자들이 편하게 신앙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져야 하는데, 키 큰 나무가 있으면 앞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탑에 대한 상징성이 약화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사찰의 공간이 대형화되면서 마당의 일부를 식재공간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키 큰 나무를 심는 것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살필 수 있다. 향후에도 사찰의 조경은 작은 것이라도 전문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지 스님들의 취향이나 신도들의 무분별한 요구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사찰은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 종교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의 마당에 키 큰 나무를 심는 것은 종교적 상징성과 신앙적 기능성에 맞지않는다. 경상북도 ㅅ사찰